

“이제부터 상상의 세계로 떠나겠습니다”



4일 오전 ‘2016 광주비엔날레’ 도슨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관람객들이 잉겔란 오르만 작가의 ‘거대한 돼지풀’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도슨트와 함께 작품 관람해보니

작가 성향·작업 배경 들려주며 재미 더해
별레 형상 김설아 작품 설명 듣고 고개 끄떡
광산 매물 생존기 다룬 영상 작품선 숙연
언제든지 질문·대화 가능…작품 이해 높여

도슨트 30분 단위 하루 11차례 진행 관람객 20인 이상팬 사전 신청 가능

광주비엔날레재단은 관람객 전시 이해를 돕고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도슨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비엔날레 기간인 11월6일까지 휴일 없이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30분 단위로 1일 11차례 진행한다. (낮 12시, 오후 1시 제외)

별도 신청이나 예약없이 1전시실 입구에서 20명까지 선착순으로 무료 이용할 수 있다. 20인 이상 단체는 이메일(docents@gwangjubiennale.org)로 사전 신청해야한다. 1~5전시실까지 약 70~90분 가량 소요된다. 문의 062-608-439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이제부터 현실세계를 벗어나 상상의 세계로 떠나겠습니다.”

4일 오전 10시, 강경원 도슨트가 전시 해설을 시작하자 광주비엔날레 1전시실에 모인 관람객 20여명은 기대감을 내비쳤다. 가족끼리, 연인끼리 혹은 친구끼리 관람객들은 제각각 방문했지만 설명이 이어지는 시간만큼은 한팀이 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올해 비엔날레 참여 작가들은 ‘제8기후대(예술은 무엇을 하는가?)’ 주제를 제각기 해석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가구를 통해 미래 인체를 알아보는 타일러 코번 작가, 5월어머니집과 위크숍 등 협업을 선보이는 빅 반 데 폴 작가 등. 작가, 작품명만 보고서는 기척의 도도를 알아차리기 힘든 작품들이 대거 출품됐다.

이럴 때는 도슨트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도슨트들은 배경 지식을 제공해 제대로 된 전시 관람을 돕는다. 또 작품에 대한 개인적인 소감, 작가 성향, 작업 배경 등 외적인 부분도 들려주며 관람 재미를 더해준다. 매표를 한 후 시간에 맞춰 입구에서 기다리면 도슨트들이 나와 전시 투어 시작을 알린다. 특별한 신청없이 따라다니기만 하면 된다.

강 도슨트는 입구에 위치한 안 리슬리거드의 ‘신탁자, 부영이…’ 어떤 동물들은 절대 잠들지 않는다’부터 소개했다.

“여러분 영화 ‘블레이드 러너’나 필립 K. 디 소 설을 본 적 있으세요?”라는 질문에 몇몇 관람객이 손을 든다. 모니터에 3D 부영이가 등장해 알 수 없는 언어를 읊조린다. 때론 위협적인, 때론 익살스러운 말투로 부영이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한다.

강 도슨트는 “이 작품은 삶과 진리를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언어와 언어가 가진 개념적 한계에 대해 표현했다”며 ““예술은 미래를 예측한다”는 올해 비엔날레 주제에 가장 잘 나타난 대표적인 작품이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 출신 박인선 작가의 ‘뿌리’, 라스 미디오 콜렉티브 ‘일식/월식’, 타일러 코번 ‘인체공학의 미래’, 니콜라스 망간 ‘성장의 한계’ 등을 살펴보다 관람이 이어졌다.

거대한 벌레처럼 보이는 광주 김설아 작가의 ‘침묵의 목소리’ 작품에 대해서는 관람객들이 ‘징그럽다’는 반응이었다. 실제 벌레를 모티브로, 아무렇지 않게 벌레를 죽이는 행동을 통해 타인에 대한 무관심을 표현했다는 설명에 이어지자 관람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영상 작품으로 꾸민 깔끔한 2전시실은 여유를 가지고 감상해야하는 특성상 필립 파레노와 박보나 작품만 간단히 소개한 후 넘어갔다. 관람객들은 박보나 작가가 주전자 등을 두드리는 행동을 반복하는 작품을 봤을 때 처음에는 아리송한 반응이었다. 이어 1967년 구봉광산 매몰사고 때 16일 만에 구조된 김창선 광부의 생존기를 다뤘다는 이야기에 잠시 숙연한 분위기가 감돌기도 했다.

통로에 미니 정원, 천정에 매달린 선공기를 설치한 셸린 콘도렐리 작품을 지나 3전시실을 들어 서자 관람객들은 미하엘 보이틀러의 ‘대인시장 소세지’ 작품을 만났다. 과일망 안에 종이를 구겨넣어 벽돌 모양으로 만들고 벽처럼 쌓아올린 작품이다. 관람객들은 종이가 소재라는 말과 전시기간 계속 벽이 높아진다는 설명에 흥미를 보였다.

추상 작품 위주로 구성된 4전시실에서는 전시 관람 뿐 아니라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다. 광택 때문에 멀리서 보면 철재 재질로 보이지만 사실은 연필을 종이에 칠한 아이샤 술타나의 ‘변화도’ 등을 설명하면 관람객들이 한번씩 만져봐 훼손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높이 5M 거대한 사각 프레임으로 만든 호세 리옹 세릴요의 ‘뽕첸 화면’은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있다”고 작품 보호를 당부했다.

도슨트 프로그램이 끝나더라도 티켓에 도장을 받은 후 재입장이 가능하다. 이날도 관람객들은 해설을 다 듣고 1전시실 입구로 되돌아갔다.

강경원 도슨트는 “작가 인터뷰, 자료 수집 등 개인적으로 공부한 부분을 추가하기 때문에 도슨트마다 전시 설명이 다르다”며 “언제든지 질문과 대화 가능하기 때문에 도슨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관람이 더 쉽고 재미있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영암, 월출산의 기운을 품은땅’전

광주신세계갤러리 20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가 20일까지 광주신세계 개점 21주년 기념전으로 ‘남도문화의 원류를 찾아서-영암, 월출산의 기운을 품은땅’전을 연다.

광주신세계는 지난 1998년부터 ‘남도문화의 원류를 찾아서’ 시리즈를 열고 있다. 예술인들이 남도 지역을 답사한 후 느꼈던 생각과 영감이 담긴 작품과 글을 전시하고 책으로 엮고 있다.

이번 전시를 위해 강운, 김경란, 김진화, 김해성, 노여운, 류재용 등 광주작가 20명은 지난 6월 영암을 답사했다. 도선국사 탄생설화를 담고 있는 구림마을, 도선국사가 창건한 도갑사, 월출산, 서광 영암목장 등을 방문했다. 송필용 작가는 두터운 붓질로 월출

산 산세와 영산강 흐름을 표현했고 허달용 작가는 먹 농담을 통해 산세와 주변 마을이 이루는 분위기를 그렸다.

한희원, 류재용 작가는 회화로, 박상화 작가는 영상으로 월출산 사계절을 작품에 담아냈다. 박철 작가는 구정봉 바위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했다.

영암이 고향인 정선휘 작가는 고향에 대한 기억들을 소재로 작업했다. 임남진, 김해성 작가는 도갑사의 다양한 문화재를 전통적 색채와 현대적 기법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제작했다.

그밖에 강운, 안희정, 박세희, 김경란 작가는 하늘, 돌(지석묘), 무덤, 전통가옥을 소재로 회화, 사진, 텍스타일 등 다양한 장르로 시각화했다. 문의 062-360-127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하성흠 작 ‘영암 들녘’

도라 가르시아·안톤 비도클·전소정 작가

광주비엔날레 ‘눈(Noon) 예술상’ 수상

도라 가르시아(Dora Garcia·스페인)와 안톤 비도클, 한국 전소정 작가가 2016 광주비엔날레 ‘눈(Noon) 예술상’을 수상했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지난 1일 개막식에서 도라 가르시아와 안톤 비도클(Anton Vidokle·뉴욕)에게 눈예술상 중진작가상을, 전소정 작가에게 눈예술상 청년작가상을 수여했다.

눈(Noon) 예술상은 광주비엔날레 창설 정신과 가치에 맞닿고 주제 ‘제8기후대(예술은 무엇을 하는가?)’에 부합하고 실험정신이 뛰어난 작품을 출품한 작가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중진작가상 수상자에게는 1만달러(1100만원), 신진작가상 수상자에게는 5000달러(550만원)의 상금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심사위원장은 이용우 히말라야미술관장, 심사위원은 바르토메오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선정 아트선재관장, 전수현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셸리 텔란트 리버풀 비엔날레 대표가 맡았다.

도라 가르시아는 광주민주화운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녹두서점-산 자와 죽은 자, 우리 모두를 위한’을 출품했다. 안톤 비도클은 세계적인 예술 매체인 이플렉스 대표이며 전소정은 영상 작품 ‘예술하는 습관’을 출품했다. /김용희기자 kimyh@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명물 박물관 탄생!!

세계 70여개국에서 수집한 조각·장식 6,000여점 전시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Ornament Museum

☎(062) 222-0072, 226-5800 일요일 휴관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문선 1층)

아프리카 소나조각

앙코르 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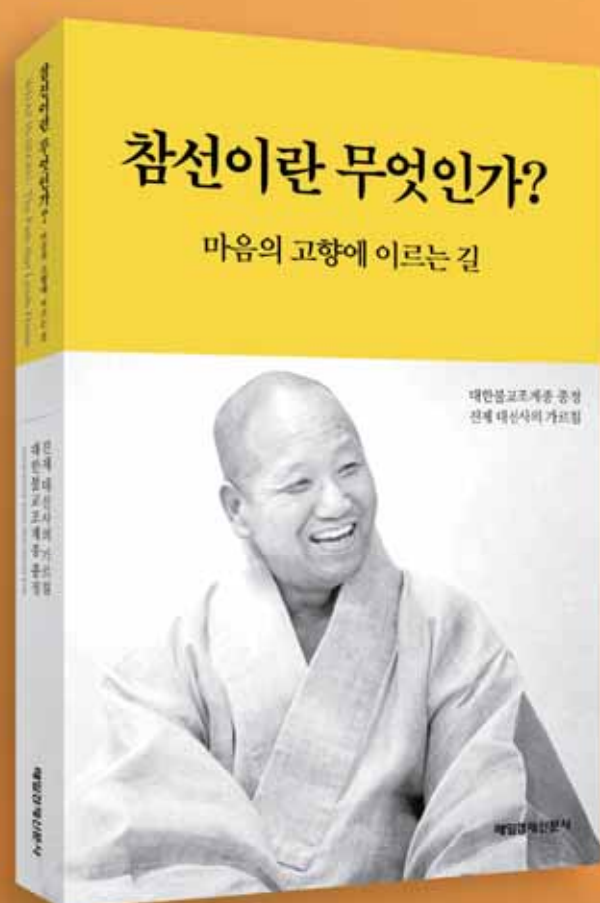
400여점 전시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진제대선사가 한글과 영문으로 전하는 삶의 지혜와 참된 행복의 메시지

“사람들이 빈한하게 사는 것은 지혜가 짧기 때문이요,
말이 여위면 털이 깊이로다.
나고 날 적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하고자 한다면,
모든 이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지혜를 밝히는 참선수행을 합시다.”

“이 책은 오늘 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에게
삶의 소중한 양식을 부담 없이 얻을 양서라 아니 할 수 없다.”

- 서울대학교 총장 성낙인



진제대선사는 향곡대선사로부터 부처님법을 인가받아 경허-해월-운봉-향곡대선사로 전해 내려온 정통법맥을 이음. 석가여래부촉법 제79대법손.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

지음 | 진제 대선사 가격 | 16,000원 팔공총림 동화사 | 053)980-7903 해운정사 | 051)746-2256